

#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추진협의회 개최

기능성식품 개발 활성화 특강·정보 공유 등... 참여기업 대표·사업단 관계자·공무원 등 6개 시·군 30여명 참석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사업의 2023년 1/4분기 추진협의회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주천마사업단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행정(도·6개 시·군) 및 사업단 담당,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참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배민정 부장의 특강 시군별 사업추진상황 공유, 현장의견 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에서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남원, 추어,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레드푸드, 임실 치즈, 순창 발효미생물 등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아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사업의 2023년 1/4분기 추진협의회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래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3단계 사업 특화 자원으로 추어를 선정, 추어탕 시래기 등 관련 상품 매출액 41억 원을 달성한 가운데, 허바 등 추어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 상품화를 추진 중이며, 홍삼이 특화 자원인 진안군은 홍삼 소재 신제품 4종을 개발함과 동시에 해외에 4천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여성, 10대 등 새로운 소비자층 확보를 위한 맞춤형 홍삼 제품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천마를 특화 자원으로 해외를 활용한 천마 쿠키, 양갱 등 6종의 신제품을 개발했고, 천마 재배 30여 농가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레드푸드를 특화 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는 장수군은 몽골에 3억 원 규모의 레드푸드를 수출했고, 앞으로 6억 원까지 수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실군의 경우 특화 자원인 치즈를 활용한 매운치즈, 커피치즈 등 신제품 3종을 개발했고, 4계절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연간 14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발효미생물을 특화 자원으로 선택한 순창군은 막걸리, 장류용 종균참가제 3종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 1건 등의 성과를 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의 성과와 현재까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2025년까지 5년간 1,0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 분기별로 추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시군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중국시장 진출, 이렇게 준비하자”

도 중국사무소, 중기 중국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온라인 강의 중국시장의 문턱·지적재산권 보호·무역시기 예방방법 등

전북도 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 소장 정순택)는 지난 16일 중국 소비자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유의사항’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시기의 유형과 그 예방방법 등 중국시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실무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여기업 및 관계자들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무역시기 등에 관한 현직 변호사의 강의와 중국

시장 마케팅 방안, 유통과정과 리스크 등에 관한 전문가의 사례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 이번 강의는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사무소는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중국바이어 연결, △처음수출 기업에 대한 중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수출허가 제품 성분검사, △중국어 라벨제작 지원 등 여러 방법으로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2023년 중소기업장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환경관련 전문가 구성... 41개 사업장 대상 1:1 매칭 통해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

전북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진수당)에 2023년 중소기업장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의 의의는 있지만 환경관련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2022년도 신규허가(신고)를 받은 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북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이 사업장과 1:1 매칭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무



전북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진수당)에 '2023년 중소기업장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간 중 지도·점검 면제 △배출사업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은 △기술지원장 환경관리요령 및 변경된 환경법령

내용 안내 △환경오염배출물질 검사 무료실시 △기술지원 완료 이후 시설 개선 및 신설 등을 위한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환경전문가, 사업장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대면식을 갖고 사업장별 애로사항 청취, 기술지원 방향 및 방문일정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조영식 전북도 생활환경과장은 발대식에 참석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은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경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2023년 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모집

양성평등센터, 내달 16일까지 신청... 8개 팀 24명 내외 선발 예정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 거점 양성평등센터가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2023년 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내 공공시설물의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양성평등센터 전문가의 성인지 교육 및 공간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모니터링단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전라북도 거주자로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자세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23년 4월부터 10월까

지 약 7개월이다.

모니터링단이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공공시설물은 전주, 완주 등 4개 지역의 버스정류장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지역을 정해 도내 14개 시군 전체의 공공시설물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모니터링단에게는 활동 지원비 지급과 성인지 모니터링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의 혜택이 있다.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jvri.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rc@jvri.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재난대비 부서 합동회의 개최

전북도는 지난 17일 재난상황실에서 유향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주·야간 비상연락 및 수습절차에 따른 대응체계와 주관 부서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재난대비 부서 합동회의를 열었다.

대형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의 사회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불가피하게 재난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수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재난 관리체계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재난발생 시 주관부서 선정 및 위기 경보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중 심각단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평소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재난 시 총괄부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주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진 도민안전실장은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비상연락 체계와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으며, “각종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소개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정보보안 컨설팅 추진

최근 홈페이지 취약점 이용한 해킹 공격 증가... 정보보안 강화로 사이버침해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최근 중국 해킹그룹이 정부 소속·산하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정보시스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정보보호 예산, 인력 등이 열악한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사이버침해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21개 “정보보안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다수의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방안, 정보보안 규정, 정보보안정책 등에 대한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자 한다.

나윤화 전북도 정보화정책과장은 “정보보안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다수의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에 노출돼 있다”며 “전라북도는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정보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15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고 정보보안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출자·출연기관용 “정보보안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보안편리가 우수한 기관 담당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